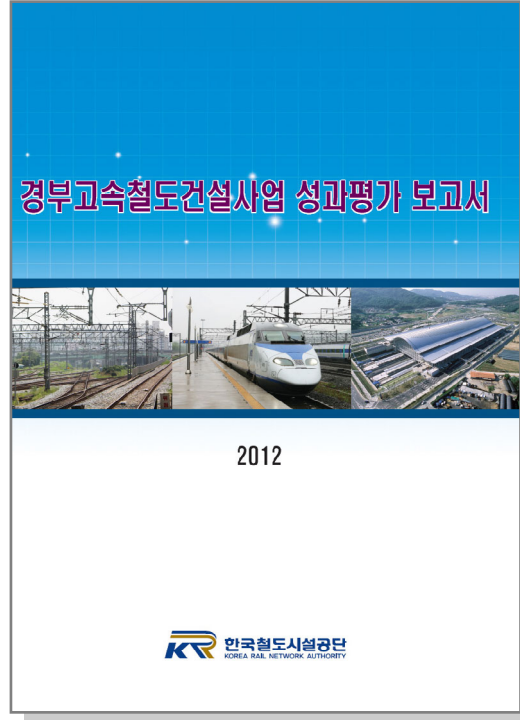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종합평가보고서 발간

- 경부고속철도 아직은 미완성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은 지난 1일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종합평가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11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는 대전·대구 도심 45.3km 구간을 오는 '14년말까지 완공하고, 서울~시흥간 17.6km도 고속선으로 연결해야 완전한 효과가 있다며 아직 미완성이라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공단이 8.8조원의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04년 1단계 개통 이후 한 푼도 상환치 못하고 이자부담만 늘어 2010년말 누적부채만 12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광명역 등 6개 중간역의 과잉선로와 과다 승강장, 실제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제어설비 뿐만 아니라 천성산 통과 터널 건설 반대 등으로 인한 건설지연과 코레일의 운영 비효율 등으로 선로사용료를 적게 받은 것이 건설비 과다 및 부채증가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KTX열차가 후속열차를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광명, 천안아산,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 등 6개 역에 부분선과 승강장을 과다하게 건설하여 광명역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부분선 4개 선로와 승강장 2개 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대구~부산간 2단계구간은 선로전환기·분기기가 없어도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을 설치하여 많은 장애를 일으켰고, KTX 차량의 잦은 고장 등 기술력 부족, KTX의 높은 운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간역 위치와 연계교통 미비로 실제 이용객이 당초 예상 수요의 62%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공단의 지속적인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KTX 운영을 독점하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년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선로사용료에만 의존하는 투자비 회수방식으로는 부채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의 재무구조 악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획기적인 국유재산 개발수의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사업도 사업비 총 14.5조원 중 50% 이상을 철도공단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경부고속철도의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등에서 과도한 역사 등 시설 설치 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운임인하를 통한 수요 증대와 투자비 회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철도연구원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관련 사업자로 및 연구자들과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번 연구를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에서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연구원 설립 이래 최초의 자체 연구 과제인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철도건설기술 향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부채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녹색철도연구원 장호환 기자>

※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 현황 ('04~'10년)

선로사용료 (A)	유지보수비 (B)	부채상환재원 (C=A-B)	건설부채 누적이자 (D)	부족분 (D-C)
1조2,399억원	7,958억원	4,441억원	2조3,449억원	△1조9,008억원

##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구매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 적정성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은 지난 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인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의 성능검증·평가를 위하여 대불선 시험선에 구축될 열차자동감시장치와 전자연동장치 구매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적정성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기술심의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지침 및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단에서 발주하는 열차자동감시장치 및 전자연동장치 구매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자리였다.

금번 심의 대상 설비는 열차자동감시장치, 전자연동장치로 대불선 일로~대불역간에 구축되는 시험선에 운행될 전동차의 운전 취급 및 개발품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기존 일로역 및 대불역 운행선을 개량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난이도가 다소 있는 과업으로 심의 안건으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제안요청서 내용의 적정성, 배점 항목 및 배점 한도의 적정성, 기술제안서 평가단 구성의 안전성 등 3건 안건에 대하여 공단 부장급, 공사 부장급, 철도연 연구단장 등 내·외부 철도신호분야 전문가 심의위원 9명(위원장 우송대학교 박재영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통한 안건별로 심의를 하였다.

심의결과 원안채택 1건, 조건부 채택 2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심의위원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본 사업 ATS/ET설비 구매 발주를 위한 일일감사, 계약의뢰 내부 방침,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2월중에 발주를 하게 된다.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성능시험 및 평가는 금년 2월 자체 발주를 시작으로 2012.3월 시험선 현장 공사를 발주하고 2012.8월 시험선 설비 구축을 완료하여 2012.9월부터 종합성능시험에 착수하여 약 16개월간 성능시험 및 평가를 시행하고 2013년 12월 완료하게 된다.

<녹색철도연구원 윤학선 기자>



## 수원~인천 복선전철 연수보조급전구분소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보조급전구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는 일반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

수도권본부는 수원~인천 복선전철구간 중 연수보조급전구분소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1일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연수구청 등 관계자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조급전구분소는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서 8~10km 간격으로 설치되는데, 실측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인천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이도~송도 구간은 금년 6월에, 송도~인천 구간은 2014년에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으로 연수보조급전구분소 설치공사는 2월초에 착공 예정이며, 소음 및 전자파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본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 '12 조직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1월 27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본부장 주관으로 실무자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장, 과장급을 주축으로 참석하였으며, 워크숍 개최 시 다수 경직된 분위기였으나 본부장의 허심탄회한 의견 제시와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사 진행 내내 유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본부는 워크숍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2012 조직문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부장 중심의 Top-Down 전략인

'본부장의 격려서신 발송' 및 '직원과 오아시스(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본부장이 직원들의 고통을 직접 수렴하여 해결)'와 실무자 중심의 Bottom-up 전략인 '전문교육을 통한 Master 양성' 및 '현장방문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각각의 R&R을 강화하였다.

향후 본부는 실행전략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한 부진사항 개선을 통해 제2의 창립에 뒤떨어지지 않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이상은 기자>

## 55년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강원본부, 도로 및 인도 재설작업 시행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1일 이 있어 제설작업과 더불어 영화촬영 오전 직원 20여명이 55년만의 기록적 살포작업도 병행하였다. 강원본부는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인 한파와 함께 찾아온 폭설로 출근길 강원본부는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교통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본부 인근 이면도로 진출입로와 통행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많은 인도 제설작업을 시행하였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특히, 지역본부 옥외 주차장 진출입도로는 경사면 결빙으로 사고의 위험



### 계시판

## 금주의 주요뉴스 (1.30 ~ 2.8)

- KTX 민영화 서둘러 될 일인가(세계일보 1.30)
- 정읍역 신축 공사비 시에 떠남길 철도공단(중앙일보 1.30)
- 매일 아동센터서 나눔활동-철도시설공단 봉사대 화제(중도일보 1.30)
- 신소래고교고 상판설치·송도~오이도구간 6월 개통(경인일보 1.30)
- 익산~대야·군장산단 철도건설 '하세일' (전북도민일보 1.30)
- 익산 선상역사 대폭 축소 위기(전북일보 1.30)
- 1:10:100의 법칙(중앙일보 1.31)
- 부산역~도시철도 지하 통로 개설(중앙일보, 신아일보 1.31)
- 공기업 일방 통제...책임·자율경영 '촉세' (한국경제신문 1.31)
- 국역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발(조선일보 1.31)
- 대구지하철 경산구간 10월 개통(서울신문 1.31)
- 전남~제주 해저터널 용역결과 또 연기(대일일보 1.31)
- 남해안 세계 관광지로 개발 목표~부산 KTX 조기 건설(경주일보 1.31)
- KTX로 서울까지 130분 산업·관광·물류 '속도혁명' (한국경제신문 2.1)
- 복지논쟁 속의 GTX (경인일보 2.1)
- "KTX 수사~평창 59분이면 도착 가능" (경기일보 2.1)
- 인천공항철도 전선으로 9분간 스톱 (경기일보 2.1)
- 수서역 KTX노선 운영 경쟁체제 도입 '선진화·효율화'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경북매일신문 2.1)
- "지방분권·균형발전" (대구신문 2.1)
- "KTX 정읍역사 계획대로 추진" (전북도민일보 2.1)
- 철도운영 경쟁체제 바른 인식: 임영록 공단 홍보본부장 (전남매일 2.1)
- 철도 경쟁체제 요구 인화 효과 있다 : 김재규 공단 강원본부장 (강원일보 2.1)
- 고속철 '경쟁 도입'에 불는 물음표 (한국일보 2.2)
- 수원역 KTX 사발역 된다(조선일보 2.2)
- 2시간 생활권 '사통팔달 강원' 만든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2.2)
- 철도소 김광재 이사장, 오늘 정읍역 방문 (전북일보 2.2)
- 추송음 의원 'KTX 민영화 저지법' 발의 (남도일보 2.2)
- KTX 민간개발, 공판다 선택돼야... (충청투데이 2.2)
- "브레이크 안눌고 고장 지하철 밀다 탈선"...어디없는 출근대란(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2.3)
- 잇따른 열차 사고와 교통대란, 시민 안전이 위협하다(한겨레신문 2.3)
- 사고만 났다 하면 코레일(서울경제신문 2.3)
- 철도시설공단, 성과목표관리제...인사제도 폐도까지 재할용등 74억 절감(충청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중도일보 2.3)
- 수인선 논현동 고가철도 동형 방음벽 건설한다(경기일보 2.3)
- 강원 교통망 '더욱 빠르게' (한국일보 2.3)
- "소음·건물 균열 책임지라" "원인 불분명...보상 불가"(경기일보 2.3)
-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영원 寒波도 녹인다(충청투데이 2.3)
- 철도공단 "경영상 재검토" 정읍시 "균형발전 역행"(전북일보 2.3)
- 코레일 사장에 정창영씨 내정(경향신문 2.3)
- 고속철도 민간 참여 贊反(매일경제 2.4)
- "설악동 재개발·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대선 공약 채택하라"(강원도민일보 2.4)
- 코레일, 훗날 속 사고보다 거짓방송이 더 나쁘다(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2.4)
- 철도 양행역사 뜬다(중앙일보 2.6)
- 교통소, 자기부상열차 운영권 노린다(인천일보 2.6)
- 부산역 일일 철도부지 개발 가시화(경상일보 2.6)
- KTX역사 이전 못 종친 채 평행선(광주일보, 전북일보 2.6)
- 고속철도 민간운영에 대해서(대구일보 2.6)
- KTX 민영화의 허구(경향신문 2.6)
- 공기업 이름 바꾸기 바람(서울경제 2.6)
-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잘못"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2.7)
- "남부권 신공항 검토할 바 없다" (한국일보 2.7)
- 진전선 사업비 국가가 75% 부담 (조선일보, 경기일보 2.7)
- 'KTX 정읍역사 신축 공방' 정치권도 가세(서울신문 2.7)
- 안전외면,요금폭탄... 경춘선 죽일 생인개(한겨레신문 2.7)
- (<기고> "KTX 경쟁체제 도입되면 운임 인하"(아주경제 2.7)
- KTX 2구간 레일 '위험 징후' (조선일보 2.8)
- 글로벌 경쟁, 철도만 예외일 수 있나(국제신문 2.8)
- 철도운영 경쟁체제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광남일보 2.8)
- 물류가 경쟁력이다(문화일보 2.8)
- 동해남부선 서생·망양·선암역 폐지 없기(경상일보 2.8)
- 경기 철도 7개 노선 연내 개통(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인천일보, 파이낸셜뉴스, 경기일보 2.8)
- 철도현장 사고율 43% 감소(중도일보, 충청일보 2.8)

### 경 조 사

-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사업처 하태길차장 부친상 - 발인 : 2012년 2월 9일(목)
- 기획혁신본부 성과관리처 유병호차장 병부상 - 발인 : 2012년 2월 9일(목)
- 건설본부 고속철도차 하오태차장 병부상 - 발인 : 2012년 2월 6일(월)
-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이기형차장 부친상 - 발인 : 2012년 2월 5일(일)
-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 이종국차장 부친상 - 발인 : 2012년 2월 4일(토)